

다시 시작 할 용기를 세우는 플랫폼

세상을 품은 아이들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가 함께 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재)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공헌재단으로,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혁신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가와 단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4 IMPACT GROUND

이 임팩트 리포트는 (재)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혁신 조직이 그리는 임팩트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처 (재)브라이언임팩트

발행일 2025년 12월

이메일 contact@brianimpact.org

홈페이지 www.brianimpact.org

기획 및 제작 (주)한국사회가치평가

Contents

1 세상을품은아이들 04

세상을품은아이들의 시작
세품아가 걸어온 길
미션과 비전
주요 사업

2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 12

세품아의 「변화 인프라(공간·시간·사람·경험)」 구축
체계적인 생활·교육 지도 및 상담을 위한 사례관리시스템(RTS) 도입·활용
세품아 교육 모델 확산 및 위기 청소년 인식개선 사업

3 가능성에서 현실로: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 17

임팩트 프레임워크
임팩트 1. 한 아이의 정체성 변화를 위한 「세품아 변화 인프라」 확립
임팩트 2. '한 아이'의 변화_긍정 정서 및 학습역량 강화
임팩트 3. "진단-기록-피드백-추적" 시스템(RTS)을 통한 회복 서사 구현
임팩트 4. 교사의 변화_회복 설계자로서의 교사 정체성 형성
임팩트 5. 세품아 모델의 외연 확장 및 위기청소년 인식 개선

4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 35

세상을품은아이들



We Make Second Chance

‘세상을품은아이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돋는 단체입니다.

아이들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며, 그 가치를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합니다.

세상을품은 아이들의 시작

세상을품은아이들(이하 ‘세풀아’)은 17년 전, 부천의 한 교회에서 위기 청소년들에게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머물 수 없어 거리에서 노숙하던 아이들을 한 명, 두 명 데려와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면서, 이들의 자립을 돋기 위한 그룹홈 클러스터(group home cluster)*를 고안하게 되었고, 점차 정체성 회복과 자립을 위한 돌봄과 교육이 통합된 대안적 모델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천 도심에서 출발한 세풀아는 2020년,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의 산기슭 마을로 옮기며 지속 가능하고 깊이 있는 회복과 성장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그룹홈 클러스터 : ‘그룹홈’은 비행이나 일탈로 가출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해체 등으로 가족과 함께 살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으로서의 대안가정을 말합니다(김형태 외, 2012:2). 세상을품은아이들은 5~7명의 청소년이 생활하는 그룹홈 3개를 하나의 확장된 가족 단위로 둑어, 서로 오가며 지내고 일상과 활동을 공유하는 ‘그룹홈 클러스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공동체 의식과 기본적인 돌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확장 가족 구조이자, 세풀아 교육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러나 세풀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공동체성과 돌봄의 기반 위에 정체성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지음학교·다음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포천에서는 예전 대안학교였던 건물을 기증받아 학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 덕분에 학교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흙밭이었던 공터를 운동장으로 탈바꿈시켜 교육과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학교와 숙소, Second Chance Library(도서관), Re-creation Lab(메이커 스페이스)*, Energy Creation Lab(GYM)*, 카페테리아, 운동장을 두루 갖춘 독립된 캠퍼스를 조성하게 되었고, 이제 세풀아는 위기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돌보는 대안학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 Recreation Lab(메이커 스페이스) : 아이디어만 있다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실험하고 창조하는 청소년들의 목공 놀이터

* Energy Creation Lab(GYM) : 건강한 몸을 만들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신체 활동 공간

세풀아의 봄여름은 초록 풀내음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가을이면 어김없이 시래기가 식당 앞 원두막을 가득 채워 겨울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어느 새 온 마을이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하는 포천 명지산 기슭에서, Second Chance Maker의 삶을 꿈꾸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오늘도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미션과 비전

We Make Second Chance

우리는 넘어진 다음 세대가 자기다운 삶을 회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Together, We Make Second Chance

새로운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여, 서로를 지지하고 모두가 연결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미션

비전

핵심가치



사람



함께



끝까지

세풀아 스토리

회복된 한 아이가 또 다른 누군가를 돋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풀아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앞에는 거대한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아이가 범죄로 들어가는 길은 너무나도 크고 넓으며 강력합니다. 아이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 좁고 미약합니다. 그래서 세풀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가해자였기에 꽁꽁 숨겨왔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세상과 나누려 합니다. ‘달팽이가 산을 넘는’ 그 감격스런 이야기를 온 마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용서받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며, 결국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삶을 선택해 가는 이길. 세풀아는 그 길 끝에 있는 ‘돕는 자’로의 성장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 6호 기관 : 소년보호처분은 가정 위탁감호인 1단계로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단계까지 총 10단계로 구성되는데 그 중 1~5호 처분은 ‘사회 내 처분’, 6~10호 처분은 ‘시설 내 처분’에 해당합니다. 6호 처분은 민간기관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처분을 이행하여 지역사회와 시설처우의 중간성격을 지니는 처분입니다. 2022년(대법원 사법연감) 기준 전체 2만 2천여명의 보호처분 중 약 1,400명이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처벌과 보호의 경계에 선 아이들**

촉법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강력한 처벌로 억제하자는 엄벌주의와 복지 및 교육을 통해 품어야 한다는 보호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관점 사이에 놓인 것이 바로 '6호 처분'입니다. 부모와 함께 지내는 1호 처분에서부터 소년원 송치인 10호 처분,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6호 처분은 지역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부모로부터의 보호가 어려운 아이들을 일정 기간 분리된 생활 속에서 지지하는 제도입니다(이승현, 2019)².

그러나 현실은 이 아이들을 온전히 품을 공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2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따르면, 6호 처분 현황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년 6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만 1,436명에 달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어디에도 머물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처분 기간이 끝나더라도 돌아갈 가정이 없고, 품어줄 어른도 없는 이 아이들은 다시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재범의 유혹은 그 길목마다 도사리고 있고, 아이들은 또다시 처벌과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세풀아는 이 아이들이 다시 길을 잊지 않도록, 단절이 아닌 회복의 시간을, 처벌이 아닌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법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음

세풀아 솔루션**처벌과 보호를 넘어, 한 아이의 '정체성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전인격적 변화 여정**

세풀아는 지난 17년간 300여 명의 청소년과 함께하며, 단순한 교정이나 보호가 아닌, 삶의 방향 자체가 전환되는 '정체성 회복 기반 성장 여정'을 구축해 왔습니다. 세풀아의 교육은 위기청소년이 경험하지 못했던 존중, 사랑, 관심, 훈계를 기반으로 시작되며, 단절과 몰입의 시간,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와 역할 전환의 과정을 포괄합니다. 이를 통해 세풀아는 한 아이의 변화가 다른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들의 변화가 모이고 쌓여서 사회의 변화를 이끈다고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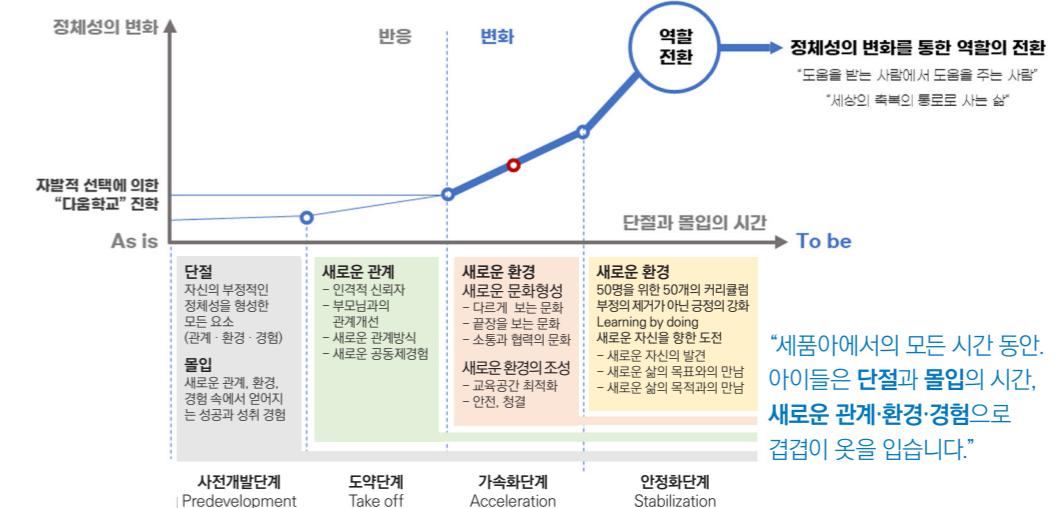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 변화

단절과 몰입 : 세풀아에서 경험하는 정체성 변화의 첫 번째 관문은 위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관계), 장소(공간, 환경), 경험의 모든 요소(관계·환경·경험)와의 단절입니다. 단절과 동시에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좋은 어른인 교사,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변화를 위한 몰입의 단계로 나아갑니다(① 정체성 사전개발단계). 부정의 제거에 집중하기보다 긍정의 강화에 집중하고 작은 성취와 성공을 경험하며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2 이승현(2019). 아동인권 관점에서 본 6호 처분(아동복지시설위탁처분)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32(1): 233-235.

정체성 변화와 역할 전환 : 이후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② 도약단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③ 가속화 단계). 아이들의 정체성 변화는 새로운 삶의 목표·목적을 정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하고 도전하는 "Learning by Doing"에서 일어납니다. 세풀아는 아이들의 성장배경과 특성, 범죄나 일탈 배경, 배움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명의 아이에게 50개 커리큘럼'이라는 가치 아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④ 안정화 단계).

세풀아의 핵심전략:
한 아이의 정체성 변화



위기 청소년들은 가족과 학교 등을 통해 경험해야 했던 존중, 믿음, 사랑, 관심, 훈계를 세풀아 안에서 비로소 경험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은 단절과 몰입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도움을 받던 존재'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역할을 전환하며, 진정한 변화의 주체로 서게 됩니다. 세풀아는 이들이 돋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정체성과 실천적 역량을 키워주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힘쓰고 있습니다.



세풀아의 이 심볼마크는 한 아이의 변화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그 변화가 성장이 되며, 여기서 더 나아가 문제아가 문제 해결의 인재로 변화하는 무한한 변화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희망의 빛이 되어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세풀아는 존중, 사랑, 관심, 훈계를 바탕으로 교육하며, 각 아이의 삶의 배경과 성장 속도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섬세한 접근은 아이들이 잃어버렸던 자신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다시 서도록 돋는 세풀아의 핵심 전략입니다.

돌봄/교육/자립을 위한 학교 운영 : 지움학교 & 다움학교

세풀아는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가치를 되찾아 이를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청소년 비영리단체입니다. 위기를 경험한 아이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며, 인격적 신뢰자의 지지와 돌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세풀아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세풀아는 '정체성의 변화가 삶의 변화다(Transform Identity, Transform Lives)'라는 모토(motto) 아래 지움학교와 다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풀아의 모태는 그룹홈이지만, 그룹홈의 돌봄과 공동체성의 기반 위에 정체성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지움학교·다움학교'를 설립하여. 세풀아는 6호 처분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 속 위기 청소년들의 정체성 변화를 지원하는 대안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움학교 : 과거의 나를 멈추고(지) 새로운 나를 움트게 하는 시간(움)

지움학교는 세풀아 초기 6개월의 교육 과정으로, 과거의 습관을 멈추고 건강한 일상생활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습관을 배워가는 학교입니다. 읽고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훈련을 통해 생각을 키워갑니다.

* 세풀아는 2016년 6월 인천가정법원, 2020년 수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그리고 2021년 1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호 기관 인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세풀아의 6호 기관은 Youth Campus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2024년 3월, 지움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움학교 : 자기다움과 우리다움을 찾아가는 시간

다움학교는 지움학교를 이수한 이후, 아이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진학 가능한 대안교육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2년제를 기준으로 하지만, 세풀아는 각 아이의 배움의 속도와 상황을 존중하기에 학습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지움학교가 생활교육에 초점을 둔다면, 다움학교는 자립교육에 주안점을 둡니다.

세풀아가 추구하는 자립은 단순한 '홀로서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립이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한 학습과 문제해결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 주도성을 키우고, 동시에 협업을 통해 관계의 힘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따라서 세풀아의 자립교육은 '나다움'을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나답게' 기여하고 살아가며, '우리다움'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몸 · 마음 · 사회 · 자립 역량의 변화

지표	변화의 내용
15년간 성과 측정을 통해 확인한 학생의 변화 (2022 임팩트리포트)	
몸	• 근력 2.4kg ↑ • 유연성 6.4cm ↑ • 근지구력 6.1% ↑ • 민첩성 2.9% ↑ • 심폐지구력 5.3% ↑ • 순발력 159.3% ↑
마음	• 정서 임상 → 정상 회복기간: 6개월 * 임상범위: 준임상 범위보다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매우 높은 수준' * 준임상범위: 해당영역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다소 높은 수준'
사회	• 연간 52시간(주1회 1시간) 상담 및 연간 26시간(주1회 30분) 코칭 • 가족과의 통화횟수 상승 등 관계 회복
자립	• 취업준비 : FISAF 국제트레이너 자격증 취득 및 지게차 자격증 필기 합격 • 학업지속 : 검정고시 합격률 88.8%, 학교 진학률 100% • 창업준비 :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



세상을 품은 아이들은 아이들의 회복과 성장을 돋기 위해
공간·시간·사람·경험으로 이루어진

‘변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생활지도와 상담을 위해
사례관리시스템(RTS)을 도입·운영하며,

세풀아 교육 모델을 확산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풀아의 변화 인프라 구축 (공간·시간·사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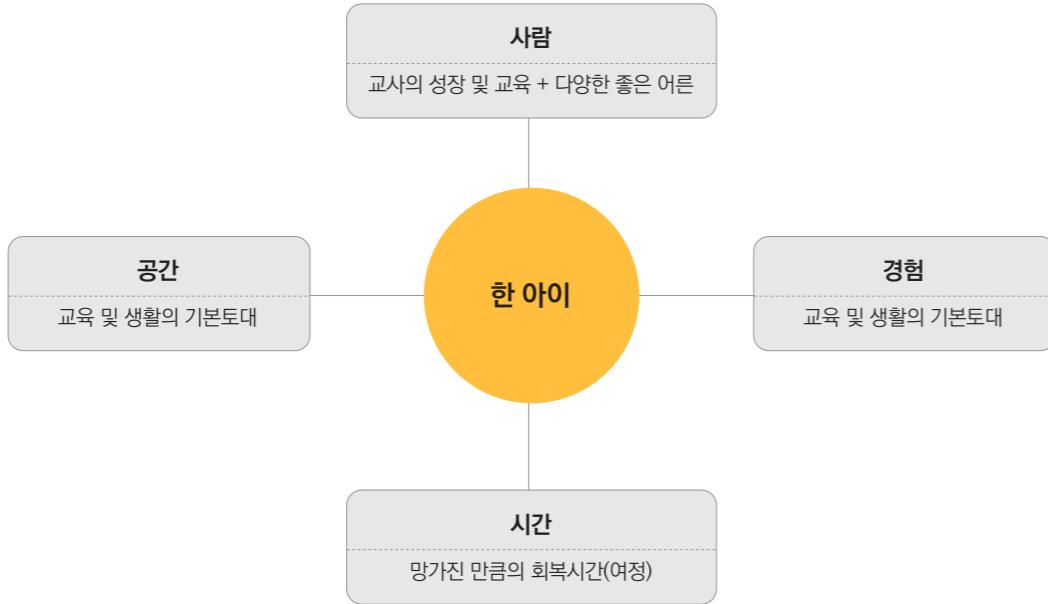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아이의 정체성이 변화하기까지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정체성 변화를 위한 세풀아의 독자적인 교육 모델 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참여는 세풀아가 새로운 여러 활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세풀아 교육 모델의 구성요소를 발견하고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 및 생활 공간을 새롭게 재탄생시켰고, 그간 선생님들과 버킷리스트처럼 이야기하던 회복 추적을 위한 사례관리시스템(RTS, Restoration Tracking System)을 구축하였으며, 교사 전문성 향상 사업 등 부족한 재원 때문에 망설였던 사업들을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 아이의 변화에 필요한 「변화 인프라(infrastructure)」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변화에 필요한 변화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이 변화 인프라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공간》입니다. 공간은 단순한 생활의 장소를 넘어, 아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넓고 폐쇄적인 시설이 아닌, 열려 있고 안전하며 따뜻한 공간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체감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간은 교육과 돌봄의 토대이자,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둘째, 아이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풀아 교사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좋은 어른의 역할을 하고자 하며, 교사 이외에도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좋은 《사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험》입니다. 존중, 믿음, 관심, 사랑, 그리고 훈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 기초 위에 몰입 가능한 활동 속에서 작은 성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체화하게 됩니다. 이 경험의 축적이 아이의 정체성 변화로 이어지는 핵심 촉매가 됩니다. 변화 인프라의 마지막 구성요소는 《시간》입니다. 6호 처분의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정체성이 변화하기까지는 과거의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면서 망가진 만큼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세풀아는 이 4가지를 중심으로 한 아이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변화 인프라 속에서 정체성이 변화한 아이는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 아이의 변화를
만드는 인프라



체계적인 생활·교육 지도 및 상담을 위한 사례관리시스템(RTS) 도입·활용

세풀아 아이들은 모두 다양한 사연과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세풀아는 아이들 모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시스템(RTS, Restoration Tracking System)을 개발하였습니다. RTS는 모든 아이들에게 개별화된 회복 경로를 설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각 아이의 성장 배경, 범죄 유입요인, 정서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아이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맞춤형 회복 경로를 제공합니다. 교사들은 매일 RTS에 접속하여 생활·교육일지를 기록합니다. 수업 중에 있었던 일, 개별 상담 내용 등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기록하여 데이터화합니다. RTS를 통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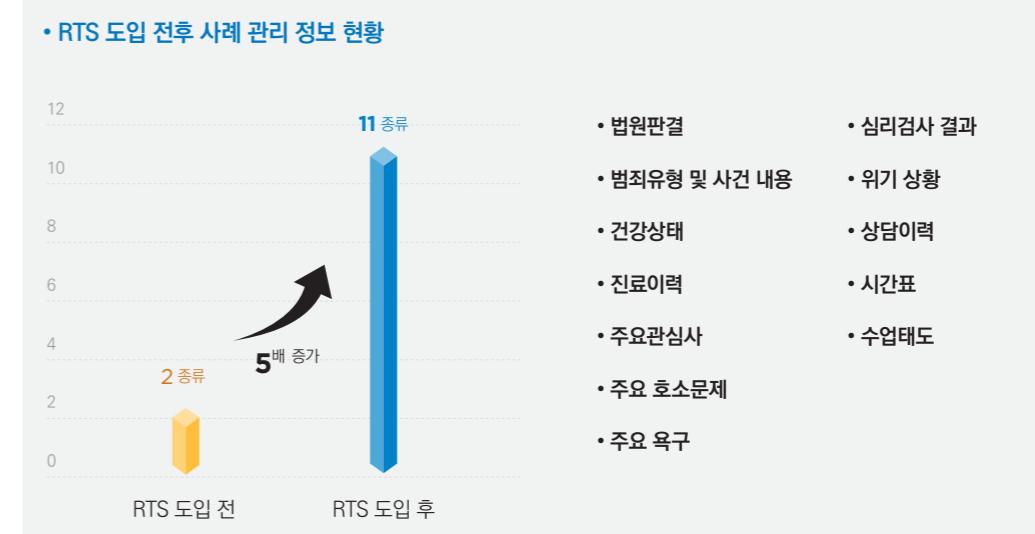
교사 한 명이 파악할 수 있는 아이의 범위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이 입력해 놓은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접점이 적었던 아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 지움학교에서 다움학교로 오는 아이들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학교 교사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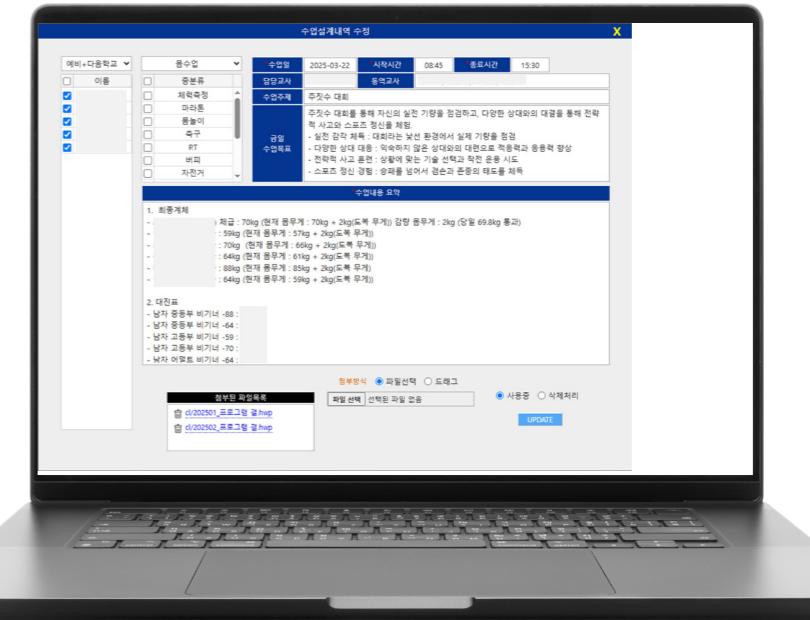
회복추적을 위한
사례관리시스템
(RTS)

- '한 아이'의 회복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기록, 보관(archiving)하는 데이터베이스
- RTS 관리함
 - 법원판결·범죄유형 및 사건 내용·건강상태·진료이력·주요관심사·주요 호소문제·주요 욕구(needs)
 - 심리검사·위기 상황·상담이력·시간표·수업태도 등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와 회복추적 내용을 DB화한 자료는 한 아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활용되어 교육의 과학성을 강화함
- '한 아이'의 성격, 진로, 기질, 적성 등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가능하며, 아이들의 변화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RTS 도입 전후 사례 관리
정보량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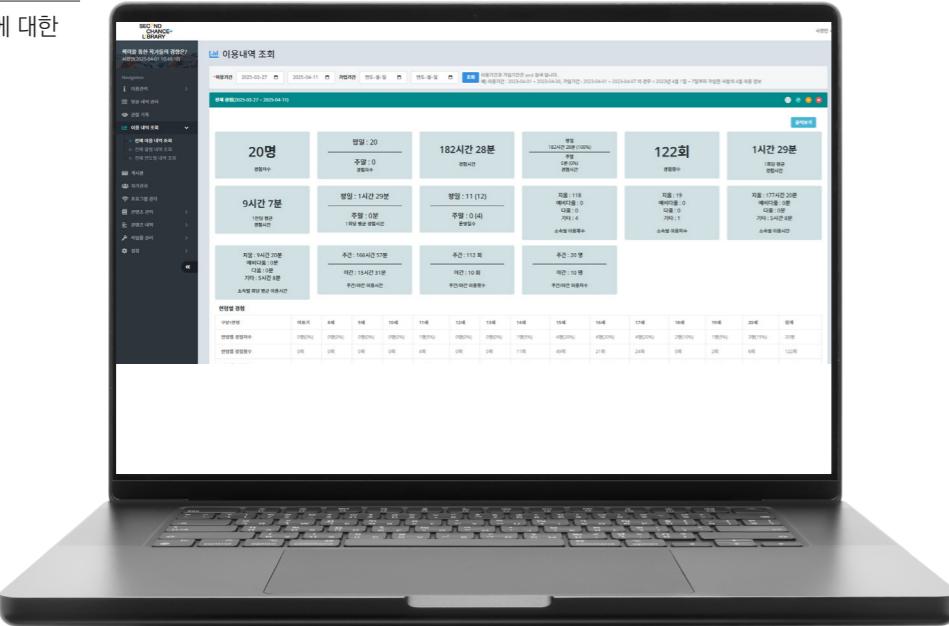


수업태도 및 학생 반응에
대한 기록



2024 IMPACT REPORT

도서관 이용내역에 대한 Dashboard



세풀아 교육 모델 확산 및 위기 청소년 인식개선 사업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감호 시설은 대체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시선 역시 이들을 변화가 어려운 존재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풀아가 만난 아이들은 아픈 아이들이었고, 가출이 아닌 탈출을 일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에 세풀아는 “한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온 마을”에 기초한 세풀아 교육 모델을 외부에 알리는 동시에, 6호 처분 아이들을 비롯한 위기 청소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팩트그라운드 참여를 계기로 미디어 기업 하이머스타드와 협업하여 세풀아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3편)하였습니다. 영상 콘텐츠 3편의 조회 수를 합하면 약 271만 회에 달합니다. 2024년 9월에는 세풀아에서 진행한 토크콘서트 영상 3편을 하이머스타드 채널에 추가로 업로드하여 세풀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였습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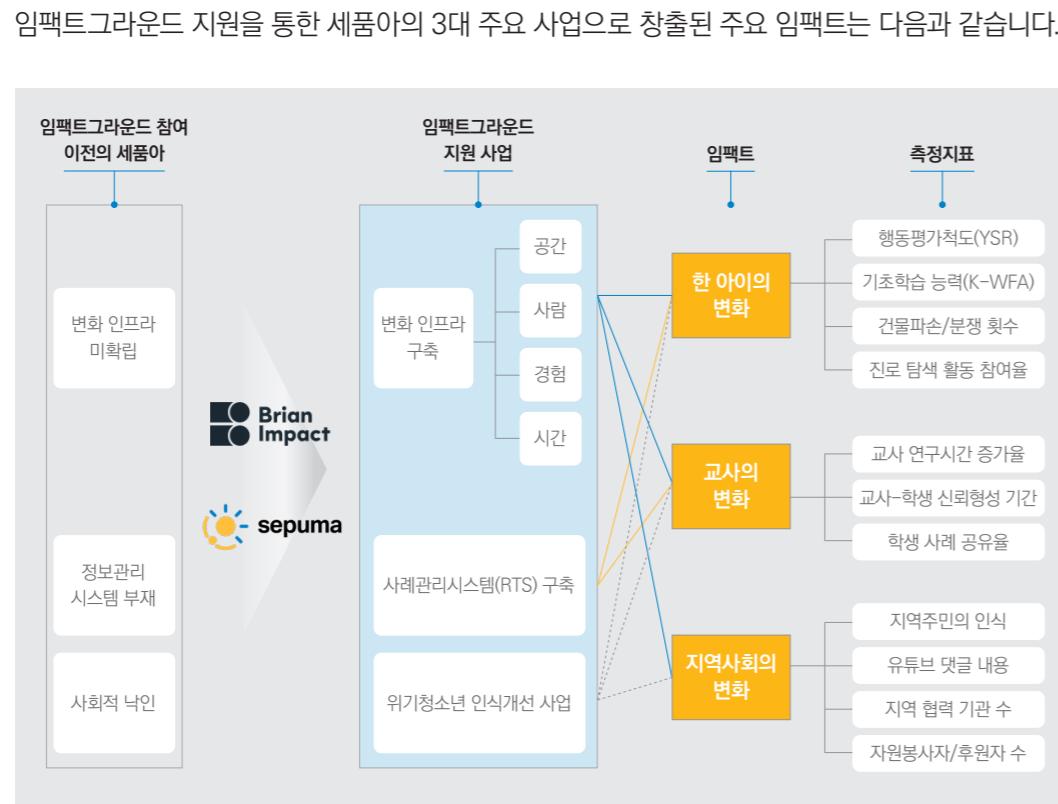
가능성에서 현실로: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



세상을 품은 아이들은 한 아이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변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긍정 정서와 학습 역량을
높였습니다.

RTS 시스템을 통해 회복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으며, 교사들은 회복을 설계하는 동반자로 성장했습니다. 세풀아 모델은 학교 밖으로 확산되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임팩트 프레임워크



임팩트 하이라이트

「한 아이를 위한 온 마을」 만들기

구분	지표	2021년	2024년	증감율
아이들의 긍정정서 강화	분쟁·다툼	연간 52회	연간 12회	약 76% 감소
	문제행동 감소율	70.6%	72.7%	약 3% 증가
운동 시간 증가	1일 운동시간	불규칙	최소 1시간 이상	9배 증가 * 국내청소년 평균 대비
아이들의 기초학습역량 증진	학년기준 향상비율	전문검사 미도입	전문검사 (K-WFA) 도입	58% 증가
	학령비율 향상비율			50% 증가
교육의 체계화	시계열 기반 개입	15%	90%	6배 증가
	사례 공유(1주)	0.5건	3.2건	약 6배 증가
위기청소년 인식 개선	유튜브 콘텐츠	없음	3건 신규 제작	250만 회 조회

① 공간 : 회복 중심의 교육 철학을 구현하는 무대

세풀아의 [공간]은 단순 시설이 아닌, 회복 중심의 교육이 구현되는 물리적·심리적 기반이자 세풀아의 철학을 전달하는 메시지(message)로 작동합니다. 한 아이의 정체성 변화를 위해서는 원래 받아야 할 존중, 믿음, 사랑, 관심, 훈계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정서적 지지와 훈육은 이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 설계와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년보호시설의 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내 6호 처분 시설 종사자 4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연구 논문(정순형·윤현석, 2022)³에 따르면 성장기 청소년 생애주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설 내에서 진행함에도 공간이 협소하거나 낙후되어 있어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들이 몸을 움직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따라서 청소년들의 회복과 돌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활동이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고 건물 자체가 평소 폐쇄된다. 외부 활동 공간이 옥상 텃밭 이외에는 없어서 운동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시설의 폐쇄성으로 건물 밖 활동이 부족하다. 이는 결국 운동 부족으로 연결되고 일부 소년의 경우 비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직업훈련 지도교사의 부재로 외부 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학생 소년의 경우 교육과정의 부재로 퇴소 후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학교 복귀 예정 소년이나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국내 6호 처분 시설 종사자 인터뷰 내용(정순형·윤현석, 2022)

부천의 세풀아 시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천 도심에 45평 4개층의 건물과 세채의 빌라를 임대해 그룹홈과 자립홈으로 사용하였고, 한창 운동할 나이의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지하 60평 공간을 임대하여 체육관처럼 활용했습니다. 공간이 비좁아 아이들의 개인공간이 없고, 공부하는 학습공간과 먹고자는 생활공간의 분리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간의 갈등이나 분쟁도 빈번했습니다.

포천에 이전한 이후, 5,800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와 11개동의 건물을 자가로 사용하며 독립된 캠퍼스(campus)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 덕분에 이 넓은 부지와 건물을 세풀아의 보금자리로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움학교와 다움학교의 학습·생활 공간을 구분하고, 자립준비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식당, 카페테리아 및 체육관, 운동장, 기숙 공간을 모두 새롭게 탈바꿈하였습니다.

³ 정순형·윤현석. (2022). 6호 처분시설 수용소년의 인권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3(6): 4113-4124.

세포아 공간의
질적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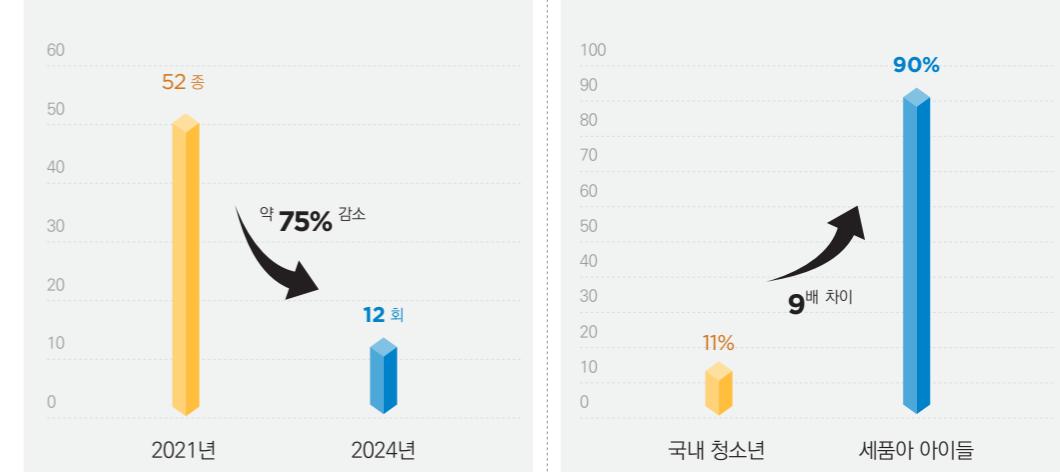
구분	부천	포천 캠퍼스	
		포천 1.0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이전)	포천 2.0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이후)
입지	도심 내 임대공간 45평 4개층, 임대 다세대 주택 3개소	독립된 캠퍼스(자기) 확보 5,800평 건물 11개동 * 기숙사 5동, 특수시설 3동(도서관·메이커 스페이스·GYM), 식당 1동, 학교 1동, 운동장, 다목적실(교회) 1동 ※ 단, 노후시설 정비 필요	• 지움학교와 다움학교 동선 및 학습 · 활동 공간 분리
운동공간	지하 임대교육 및 운동 공간 80평 *이외 교육공간은 외부 공공시설 활용	• 운동장 부지: 풀밭으로 방치 • 실내 운동시설 없음	• 전용 농구장 · 축구장 마련 • GYM 개설 (사계절 실내외 운동 가능)
회복공간	없음	노후시설 정비 필요	• Maker Space (자립지원센터) 개소
활동공간	학습·생활공간 동일	노후시설 정비 필요	• 식당 및 카페테리아 정비 • 음악실 리모델링

공간 정체성	가정 형태의 구조	교육적 정체성 미약	공간 자체가 교육 철학 전달

그러나 포천으로 이전 후, 넓고 독립된 공간을 얻게 되었지만 아직 공간이 정비되지 않아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면 학교 앞 컴퓨터로 나와 풀을 뽑으면서 놀거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움 · 다움학교의 생활·학습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기에 질서와 규율을 가르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습이나 기타 자립 준비 활동에 몰입할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학생들끼리 자주 부딪치면서 다투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잦았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의 일환으로 공간 재정비를 통해 흙밭이던 공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식 공간이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1명이 그냥 우두커니 나가 있으면 해도 어느 순간 10명씩 모여 웃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운동이 끝나면 저녁엔 운동장 바닥에 누워 별을 봐요. 그땐 정말 아주 많이 좋아요. 포천의 별레들도 다 같이 별을 보겠다며 옆에 와 놓지만 그래도 좋아요.

다움학교 H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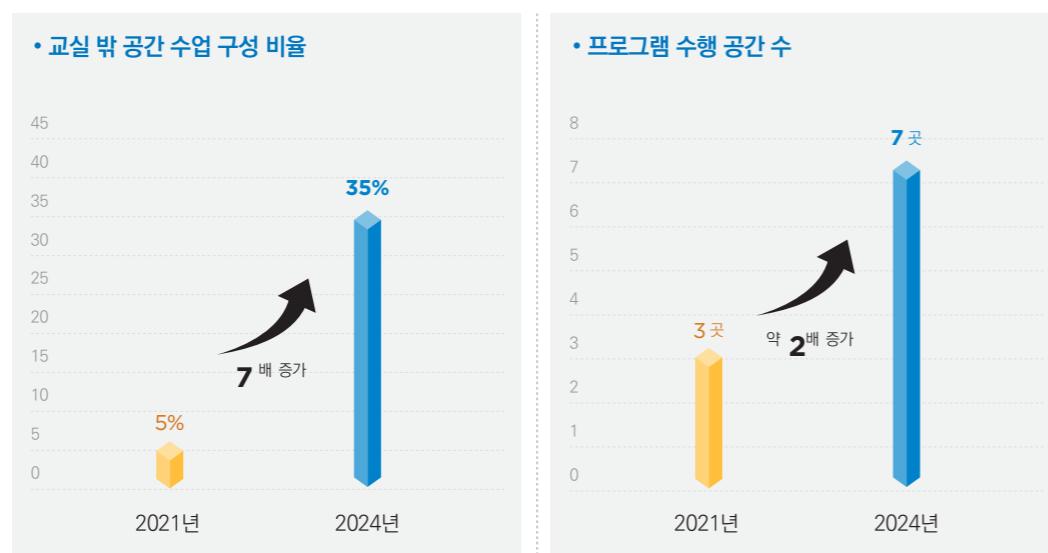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이전
vs. 이후 공간 인프라
현황 비교정서사고 발생 감소 및
운동 시간 증대

부천의 45평(4개층) 공간에서 포천의 5,300평 대지로 이전한 이후에도 폐교한 대안학교 건물과 부지를 사용하다보니 방치된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간 인프라 구축으로 방치되거나 노후했던 시설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자, 아이들 간의 분쟁이나 다툼은 1/4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공간을 새롭게 가꾸는 과정에는 아이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움 · 다움학교를 분리할 때는 아이들이 손수 교실 벽화를 그리면서 서로 협력하였고, 공간마다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시간 활용에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 남학생

의 경우 경우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이 10.9% 밖에 되지 않지만, 세풀아 아이들은 거의 매일 최소 1시간 이상을 GYM이나 운동장에서 보냅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이전에는 거의 매주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건물이나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운동장에 나가서 뛰거나 GYM에서 운동하며 에너지를 분출함으로써 분쟁과 갈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교사의 수업 설계
자유도 향상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감정과 존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자신을 수용해 주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간이 그저 물리적 환경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공간(이바쇼, 居場所)으로서 심리 · 정서적 회복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⁴.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은 포천의 독립된 캠퍼스가 위기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디딤돌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홈, 자립홈 체제에서 대안학교 형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공간 인프라 구축은 교사들의 수업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간이 정비되면서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2배가량 늘어났고, 이에 따라 교실 밖에서 진행하는 수업 구성 비율이 5%에서 35%로 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실 밖 수업이 확대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서서 교사 스스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도가 확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사들 간의 협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이젠 수업이 칠판 앞에서 끝나지 않아요. 공간이 수업이 되고, 활동이 수업이 됩니다. ■

참여교사, 세풀아 교사 워크숍 소감

② 사람 : 세풀아 교육 철학의 핵심 축

『사람』은 세풀아의 변화 모델, 즉 “정체성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이끈다”는 세풀아 철학의 핵심 축이자 아이들의 변화를 견인하는 결정적 인프라입니다. 『사람』에는 교사, 자원봉사자, 인턴 및 전문가,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가 포함됩니다. 그중에서도 교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받으면서 교사들은 북클럽(Book Club) 형태의 교사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신건강의학이나 청소년 범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이들에 대한 이해 증진 목적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인턴, 외부 네트워크도 세풀아 아이들에게 중요한 “좋은 어른”的 역할을 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이전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별도 교육을 제공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으로 공간 인프라를 개선하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정기 초청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자원봉사자 간 교류 기회도 마련하며, 자원봉사자와 아이들을 매칭하는 프로그램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름 · 겨울 방학에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등 청소년 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세풀아에서 1~2개월가량 기숙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울러 기업이나 종교기관 등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좋은 어른들과의 만남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⁴ 石本雄真(Ishimoto Yuma). 2009.“居場所概念の普及およびその研究と課題.”『神戸大学大学院人間発達環境学研究科研究紀要』3(1): 93–100.

세풀아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의 역할 강화

구분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전 상황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후 변화	
		2023~2024년	2025년
교사	개별 교사 역량에 의존 비공식적 성장구조	워크숍 16회, 16권 완독 • 정기 북클럽 및 워크숍/교사 강연 • 구조화된 성장 체계 확립	교사강연 4회
자원봉사자	간헐적·단기 지원/교육 부재	• 정기 참여를 위한 매칭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 교육 체계 확립 • 자원봉사자 간 교류 기회 제공	
전문봉사자/ 인턴십	1회성 멘토링	• 여름·겨울 방학기간 인턴십 도입 • 자립역량 지원 강의 등 프로그램 운영	
외부 네트워크	네트워크 미비	• 기업 및 종교기관과 지속 교류 • 다음학교 교육과 연계	

③ 경험 : 한 아이의 정체성 변화를 위한 핵심 도구

《경험》은 세풀아가 추구하는 정체성 변화 중심 교육의 핵심 도구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새로운 사람처럼 행동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경험하고, 그것이 반복될 때 정체성의 재구성이 일어납니다. 세풀아는 그동안 시도해 온 다양한 교육 경험(시그니처 수업, 몸·여행·음악·자립 수업 및 생활수업)을 통합적인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조화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한 아이들의 몰입과 자기표현, 자립역량과 정서회복에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임팩트 2. '한 아이'의 변화_긍정 정서 및 학습역량 강화

행동평가척도(YSR) 검사_문제행동점수 감소

세풀아는 아이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행동평가척도(Youth Self Report, 이하 YSR) 검사를 실시합니다. YSR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로, 불안이나 우울 등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평가 대상자의 사회적 적응 및 정서, 행동 문제를 측정하는 평가도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평가하는데, 내면화의 경우 불안, 우울, 위축 등 내면적인 어려움을 의미하고 외현화는 공격성, 규칙 위반, 과잉 행동 등 외부로 표출되는 문제행동을 뜻합니다.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적응 정도를 평가하는 자가 검사에 해당하며, 점수가 상승할 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풀아는 모든 아이들의 지음학교 입소 시기에 1차(사전) YSR 검사를 시행하고, 6개월 후 2차(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세풀아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및 아이들의 변화를 점검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풀아 아이들의 문제행동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풀아 아이들의
문제행동점수 평가 결과

검사 연도 (2차 검사일 기준)	응답자 수	점수 증가(%)	점수 감소(%)	변화 없음(%)
2020	1명	0.0%	100.0%	0.0%
2021	17명	29.4%	70.6%	0.0%
임팩트그라운드 지원(2022~2023년)				
2023	22명	27.3%	68.2%	4.6%
2024	11명	27.3%	72.7%	0.0%

1 · 2차 검사 결과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이전인 2021년에도 점수는 감소하였으나, 세풀아 변화 인프라가 확립된 2023년 이후 점수 감소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2021년 당시에는 점수가 증가한 아이들의 비율이 29.4%였지만,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으로 변화 인프라 및 RTS가 구축된 이후, 2023년에는 점수 증가 비율이 27.3%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풀아 아이들의
문제행동점수 평가 결과 :
임상/준임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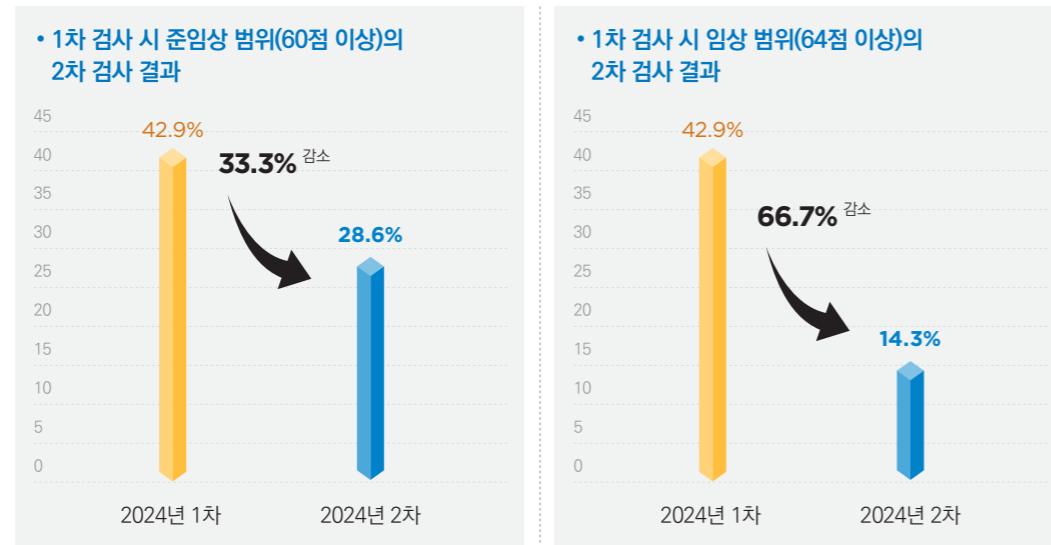
검사 연도 (2차 검사일 기준)	1차 (≥ 60 점)	1차 (≥ 64 점)	2차 (≥ 60 점)	2차 (≥ 64 점)
2024	42.9%	42.9%	28.6%	14.3%

문제행동점수는 60점 이상의 경우 준임상 범위, 64점 이상은 임상 범위로 분류합니다.

* 임상 범위(64점 이상) : 준임상 범위보다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매우 높은 수준'
** 준임상 범위(60점 이상) : 해당 영역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다소 높은 수준'

위의 문제행동점수를 임상, 준임상범위로 분류할 경우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이후인 2024년에는 1차에서 준임상 범위를 보였던 아이들의 비율이 42.9%를 기록하였으나 2차 검사에서 28.6%로 줄어들었고, 1차에서 임상범위에 있던 아이들 역시 42.9%에서 14.3%로 감소하였습니다.

YSR 검사결과 :
준임상 및 임상 범위의
변화



이로써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계기로 추진한 변화 인프라와 RTS 구축 사업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초학습능력(K-WFA 한국판 웨슬러 기초학습기능검사) 향상

세풀아는 2024년 11월부터 K-WFA 검사를 도입,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기초 학습 기능이 미달하거나 학령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학업수행을 보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학습 능력에 대한 객관적 진단 및 느린 학습자 선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K-WFA 검사란?

K-WFA 검사는 한국판 웨슬러 기초학습기능검사(Korean Wechsler Fundamentals: Academic Skills)의 줄임말입니다. 이 검사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핵심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서 낱말읽기, 읽고 이해하기, 쓰기, 셈하기의 기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현재 교육청, Wee센터, 심리상담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검사 도구로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 검사입니다.

K-WFA 세풀아 도입 배경

2024년 이전에도 세풀아에서는 아이들의 기초학습능력을 측정하였으나, K-WFA와 같은 전문적인 검사를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과목별 담당 교사가 초등학교 3~5학년 수준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게 한 다음, 평균 점수를 바탕으로 기초학습을 판단했습니다. 교육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K-WFA 검사 적용 제안을 계기로 현재는 체계적인 방식에 따라 기초학습능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학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도구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존 검사들은 주로 장애진단(지적장애, 학습장애 등)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있어 학습속도가 느리지만 진단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청소년군(경계선 지능 및 학습 부진 일반군)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K-WFA는 낱말읽기, 읽고 이해하기, 쓰기, 셈하기의 4가지 기초학습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장애 유무보다는 현재의 학습 수행 수준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한 도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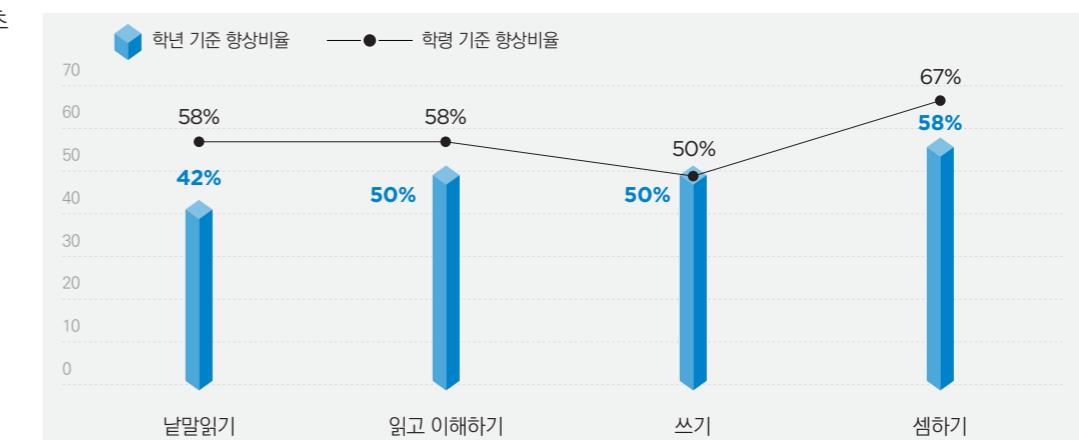
학습 관련 세풀아 아이들의 특성

세풀아에 입소한 아이들 중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경험이 단절되었거나 학습 기초가 매우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전반적인 인지능력은 평균 범위에 속하나, 학업 성취는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은 느린학습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일반적인 교육방식과는 다른 개별화된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조기 선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K-WFA는 학습자 개별의 강점과 약점, 기초 기능의 결손 정도, 학습 수행 특성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맞춤형 교육 계획 수립과 개입 전략 설정에 유용한 평가도구로 기능합니다.

검사결과

2024년 상·하반기에 입소한 아이들 11명을 대상으로 K-WFA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년 기준 학습 역량이 향상된 아이들의 비율은 4개 영역 평균 50%, 학령을 기준으로 할 때 학습 역량이 향상된 비율은 4개 영역 평균 58.3%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 기초 학습학년 및 학력 향상 비율



사전 검사 당시 아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15세 8개월로, 중학교 3학년의 기초 학습 수준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사전 검사 결과 아이들의 평균 학습 수준은 만 10세 5개월로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읽고 이해하기의 경우 만 10세 정도의 수준을 보여 4개 영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사후 검사 결과 6개월 동안 낱말읽기는 평균 만 11세에서 만 12.7세로, 셈하기도 만 10세에서 만 11세 수준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읽고/이해하기의 경우 단어를 읽는 것보다 더 복잡한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쓰기 영역도 문장을 구성하고 맞춤법과 문법을 점검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크게 향상되기는 어려워 지속적인 연습과 피드백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됩니다.

사전/사후 학습연령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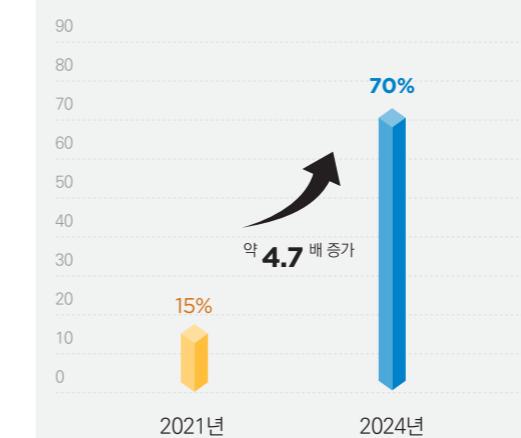
이러한 학습역량의 향상은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의 변화 및 RTS 도입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1:1 학습관리의 성과에 해당합니다.

자립준비 태도의 변화: 진로탐색 활동 참여율 향상

세풀아 변화 인프라 확립 및 RTS 활용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서 아이들의 진로 탐색 활동에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악기를 배운 적이 없거나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새로운 자신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고, 이는 진로를 고민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였습니다.

진로탐색 활동 참여율의 변화

• 진로탐색 활동 참여율



• 악기를 전혀 못 다뤘는데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_음악수업 참여 학생의 공연 후기

• 왜 이제 공부를 시작했나 싶어요. 문제가 풀리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어요.
_시그니처 수업 발표 이후

• 창업을 하고 싶어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_시그니처 수업 발표 이후

지움학교에서 다움학교로의 전환율

지움학교에서 다움학교로 전환한 아이들의 비율도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지움학교는 6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교육을 받는 학교이며, 다움학교는 예전의 '자립홈'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래 현황을 통해 예비다움(지움학교에서 다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단계)의 경우 2021년 전환율이 20.6%였으나, 임팩트그라운드 지원(2022~2023년) 이후인 2024년에는 22.9%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비다움을 거쳐 다움학교로 진학을 결정한 아이들의 비율도 2021년에 20%에서 2024년 22%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움학교에서 다움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중학생의 경우 다움학교(미인가 대안학교)가 아닌 정규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2023년~2024년 사이에는 중학생들이 세풀아에 다수 들어오면서 다움학교 전환 비율이 조금 줄어들기도 했지만, 2021년과 2024년을 비교할 때 전반적인 전환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움학교에서 다움학교로의 전환율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6호퇴소예정자	34명	34명	34명	35명	19명
연장	7명	12명	12명	8명	5명
전환율(예비다움)	20.6%	35.3%	35.3%	22.9%	26.3%
연장퇴소예정자	5명	12명	12명	9명	7명
연장	1명	3명	4명	2명	2명
전환율(다움학교)	20%	25%	33%	22%	29%

임팩트 3.
**“진단-기록-
 피드백-추적”
 시스템을 통한 회복
 서사 구현**

회복추적을 위한 사례관리시스템(RTS) 도입으로 경험 인프라의 질적 제고 견인

아이들의 경험은 교사가 얼마나 아이들을 밀도있게 파악하는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으로 세풀아는 아이를 진단·기록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관찰·추적하는 순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RTS 도입 이전에 한 아이에 대해 교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처벌 결정문과 간단한 인적사항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사는 법원판결을 비롯하여 11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한 아이에 대한 입체적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아이를 파악하는 시간, 3개월 → 1.5개월로 단축

RTS를 기반으로 한 아이에 대한 11가지 정보를 교사가 동시에 공유하게 되면서 한 아이를 파악하는 데 소요되던 시간도 절반 가까이 단축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아이를 알아가는 데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RTS 도입 이후 이 시간이 반으로 줄어 이제는 평균 1.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6호 처분을 받고 지움학교로 오는 경우는 6개월 단위로 퇴소 또는 연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세풀아에서의 하루는 바깥에서의 하루와는 차원이 다른 시간적 가치를 지닙니다. 아이를 빠르게 파악할수록 더 많은 돌봄과 맞춤형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RTS 도입은 한 아이를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 주었습니다.

시계열 변화 기반 맞춤 개입 + 객관적 피드백의 구조화

RTS 도입 이전에도 교사들은 일지 형태로 1주일에 평균 0.5건 정도의 사례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RTS 도입 이후 교사 1명당 매주 기록하는 사례는 평균 3.2건에 달하면서 사례 관리 정보량은 540% 증가하였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기록이 누적되면서 시간 변화에 따른 아이들의 변화를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사의 개인적 경험과 직관에 따라 개인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으나, RTS 도입 이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개입시기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날 때에도 각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공통된 이해와 공동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월 평균 1~2회 가량 맞춤형 개입을 설계한 반면, 현재는 월 8~10회 이상 개입계획이 늘어났고, 교사와 학생 간의 개별 피드백 대화 횟수도 주당 1건 미만에서 4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팀별 회의에서 아이들의 구체적인 사례정보를 활용하는 횟수도 연 3~4회에서 연 24회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느낌으로만 아이를 봤는데, 지금은 말, 감정, 행동의 흐름을 RTS로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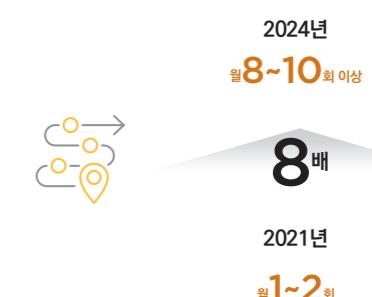
참여교사, 교사 사례회의 중 RTS 활용 소감

RTS 도입 전후
 사례 기록 및
 개입 현황 비교

사례 기록 건수(주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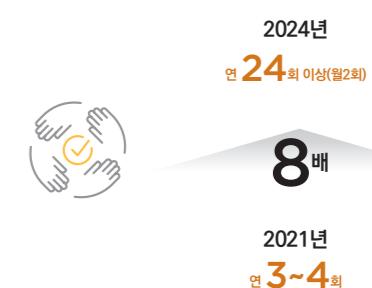
맞춤형 개입 설계 빈도



교사-학생 개별 피드백 대화



팀 사례 회의 활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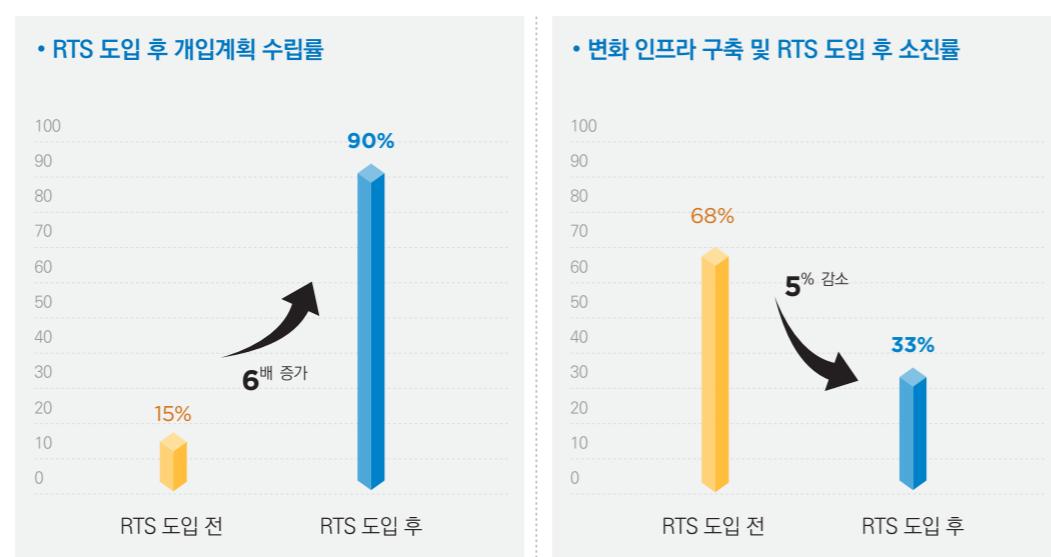


임팩트 4. 교사의 변화_회복 설계자로서의 교사 정체성 형성

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소진 감소

RTS를 활용한 학생 이해도 향상 · 개입 설계의 주도성 · 교사 공동 대응 및 협업 구조화 등은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세풀아 변화 인프라 확립과 연계하여 생성된 임팩트입니다. 공간 인프라 구축 이전에는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수시로 선생님을 찾고, 항상 교무실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은 스스로 원하는 공간을 찾아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 시간만큼 교사들은 사례 관리 및 커리큘럼 개발 시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수업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늘어나면서 수업 설계의 자유도가 높아졌고, RTS 사용은 개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교사의 재량권과 주도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변화 인프라 구축 및
RTS 도입 후 교사의
변화



RTS 도입 이전에 아이들에 대한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접근하는 비율이 15%였다면, 도입 이후에는 90%로 거의 모든 교사들이 RTS를 활용하여 개입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량권과 주도권은 교사들의 자기효능감 증진 및 소진 감소로 이어졌는데, 특히 소진의 경우 한 아이의 사례를 모든 교사가 동시에 공유하므로 담당교사만의 책임이라는 부담감으로부터 해방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TS 이전에 정서적 소진을 느꼈다는 교사가 68%였던 데 반해 RTS 도입 이후에는 33%의 교사만이 소진을 경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임팩트 5. 세풀아 모델의 외연 확장 및 위기청소년 인식 개선

위기청소년 인식 개선을
위해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 3편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세풀아 알리기

세풀아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미디어기업 하이머스타드와 함께 세풀아에 관한 동영상 3편을 제작,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콘텐츠는 약 271만회(3편 합산)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이 콘텐츠를 통해 자원봉사자 및 인턴, 후원 희망자도 늘어났습니다.



교대 졸업 후 망가진 아이들을 선택한 별난 선생님의 VLOG :
6호 시설, 비행 청소년, 결혼하자마자 주말부부, 세컨찬스

- 게시일 : 2023.3.5.
- 조회수 : 221만회
- 좋아요 : 3.6만 개
- 댓글수 : 2,591개



소년범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전 머무는 곳,
6호 시설에서 그들을 만났다 : 드라마와 TV 밖 소년범의 '진짜' 모습

- 게시일 : 2023.3.18.
- 조회수 : 39만회
- 좋아요 : 5,500개
- 댓글수 : 560개



소년재판을 받은 아이들과 지영 쌤을 다시 만났습니다.

- 게시일 : 2023.10.26.
- 조회수 : 11만회
- 좋아요 : 2,200개
- 댓글수 : 227개

콘텐츠 조회수가 200만회를 넘어서면서 첫 번째 콘텐츠(교대 졸업 후 망가진 아이들을 선택한 별난 선생님의 VLOG)에는 약 2,590개의 댓글이 달릴 만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댓글로는 “알고보면 세상엔 알려지지 않은 참 멋있는 분들이 있어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좋아요 6천개), “우리의 세금이 이런 분들에게 쓰여야 한다”(좋아요 4.4천개), “이런 교육시설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좋아요 360개) 등의 반응에 이어 아이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0illia 2년 전
알고보면 세상엔 알려지지 않은 참 멋있는 분들이 있어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6천 댓글 담글

@magicsooup12 1년 전(수정됨)
우리의 세금이 이런 분들에게 쓰여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해외 연수도 가서 다른 나라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배우고 나누고, 교육 프로그램, 안식년 프로그램 등 세워서 선생님을 마음도 관리해 드려야죠. 시설도 개선해줘야 하구요. 저런 학생들을 보듬어야 전체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아이들도 마음의 상처를 좋은 앞날로 치유하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족이 있더라도 다른 어려움과 속제가 있는 게 삶입니다. 자신의 처지만 너무 깊게 들여다보지 말고 힘차게 당당하게 견디고 버텨서 하루하루 살아 내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시간은 많고 좋은 날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 IMPACT REPORT

4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

자원봉사자 및 인턴 등 자발적 적극 지지자 증가

유튜브 콘텐츠 등 세풀아에 대한 긍정적인 콘텐츠가 발신되면서 세풀아의 지지자도 늘어났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2022년 6명에서 2023년 26명으로, 후원자도 2022년 244명에서 32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풀아 지지자 규모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율	
				1년차	2년차
자원봉사자	2명	6명	26명	200%	333%
후원자	250명	244명	324명	-2%	32.8%

▶ 유튜브 영상을 보고 세풀아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때 마침 인턴 모집 공고가 났고 신청한 이후 2024년 1~2월 두 달간 상주 인턴으로 세풀아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모습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

_자원봉사자 및 인턴 황OO(철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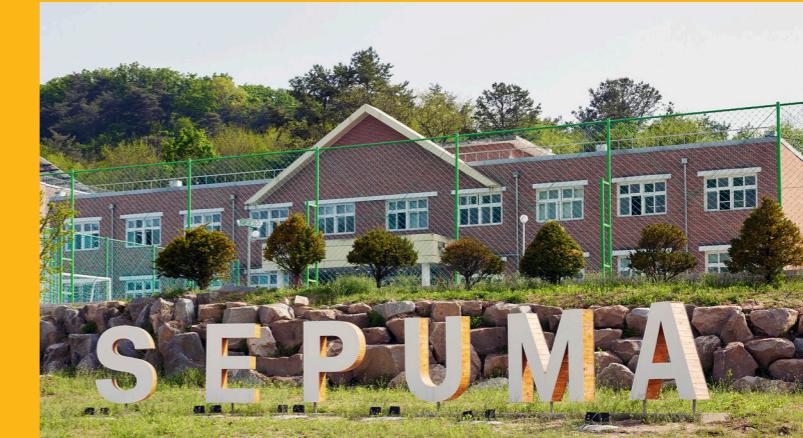
▶ 처음 세풀아 타운에 들어서는 순간 “예쁜 학교네”라고 생각했었어요. 아이들과 체육대회를 하면서 “우리와 다르지 않네”라고 생각했고요. ■■■

_전문 자원봉사자 박OO(성우, 스피치 수업 진행)

세풀아 초청의 날 개최/지역사회와 연계

그동안 세풀아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교육이나 공연 등 외부 활동에 참여할 때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풀아의 변화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이제는 지역 주민을 비롯한 외부 인사들을 기꺼이 세풀아 공간 안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인근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간을 개방하고, 세풀아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풀아 초청의 날’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을 위한 식사 대접과 주거 개선 프로젝트, 명절맞이 지역 주민 행사 등을 통해 세풀아는 점차 지역사회에 열린 공간, 친근한 이웃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5개 기관, 115명의 손님이 세풀아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세풀아는 지역사회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아이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의 삶의 전환을 위한 통합 생태계 구축 및 확산

“회복에서 자립으로, 자립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는 성장 여정”

세풀아는 범죄를 경험한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며, 궁극적으로는 타인을 돋는 존재로 성장해가는 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돌봄·교육·공동체의 세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적 생태계를 설계하고, 구조화·제도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1. 정체성 회복 기반 삶의 전환 교육모델

Identity Restoration-based Life Transition Education Model

“정체성의 변화가 삶의 변화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위기청소년 각자의 내면에 있는 본래의 가치와 가능성을 회복시키는 통합 교육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개발하고 고도화하겠습니다. RTS(회복추적시스템)와 WMS(작가관리시스템) 등 데이터 기반 회복·성장 추적 체계를 고도화하고, 개인의 회복 가능성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커리큘럼을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이끌어갈 전문 교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회복을 함께할 ‘좋은 어른’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겠습니다.

2. 돌봄-교육-자립의 통합 생태계 구축

Integrated Ecosystem for Care, Education, and Independence

청소년의 회복에서 자립으로 이어지는 성장 여정을 지움학교(보호처분 기관), 다움학교(대안학교), 자립 네트워크로 통합 설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움학교의 회복 중심 대안교육을 안정화하고 확대하며, 퇴소 이후에도 자립 네트워크와 연계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포천을 거점으로 회복 기반 자립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조성

Social Awareness Shift & Community-based Cultural Movement

청소년 회복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화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용성과 참여를 높이는 회복문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유튜브와 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회복 사례를 확산시키고, 시민들과의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시민교육, 설명회를 통해 ‘좋은 어른’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 창업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해 공동체 기반의 회복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